노동시장의 미묘한 균형, 연착륙 기대감에 미 증시 상승

Market 황산해 _ sh.hwang@ls-sec.co.kr
RA 신승윤 _ seungyun.shin@ls-sec.co.kr

노동시장의 미묘한 균형에 만족한 시장. 대형 기술주 반등

미 증시는 DOW +0.48%, S&P 500 +0.65%, NASDAQ +0.81%, Russell +0.78%로 상승. 컨센을 하회한 12 월 고용 보고서가 미묘한 균형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연착륙 기대감으로 연결. 증시는 최근 부진했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 또한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표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모기지 채권 매입 발표에 따른 유동성 개선 기대감으로 시장 전반의 온기 확산. 금융과 헬스케어 제외한 대부분 업종 상승 마감. 9 일로 점쳐졌던 IEEPA 상호 관세 대법원 판결도 부재하며 당장의 불확실성 경계 심리는 완화

미 국채 금리는 2Y 3.53%(+4.4bp), 10Y 4.17%(-0.2bp)로 상승. 유가는 WTI 기준 +2.35% 상승한 $59.12 로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반영

12 월 고용보고서, 1 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예비치 발표

12 월 비농업고용은 5 만명 증가로 컨센(6.6 만) 하회. 10 월과 11 월 수치도 각각 -10.5 만→17.3 만, +6.4 만→+5.6 만으로 하향 조정. 업종별 고용은 대체로 음식,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 실업률은 4.4%로 컨센(4.5%) 대비 양호. 리치먼드 총재는 완만한 노동 공급과 완만한 고용 증가 사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무적이라 평가

1 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예비치는 54.0pt 로 컨센(53.59pt) 상회. 전월(52.9pt) 대비로도 호조. 세부 항목 중 현재 경제여건지수와 소비기대지수가 상승. 1 년 기대 인플레는 4.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5 년 기대 인플레는 3.4%로 전월(3.2%) 대비 상승. 미시간대 측은 저소득층 소비심리는 개선되는 반면 고소득층 심리는 하락하고 있다 설명

이란 내 반정부 시위 격화, 돈로 주의 영역 확인

이란 내 반정부 시위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지정학적 리스크 경계심리 고조.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 주의(패권, 독립주의) 성격 강조된 가운데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SNS 를 통해 개입 의지를 표출. Polymarket 에서는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나이가 3 월말 내로 통제권 잃을 확률은 1 월초 10%에서 현재 40%까지 급등. 여기에 미국이 1 월말까지 이란 공습을 단행할 확률도 50%에 육박

한편 베네수엘라 사태와 달리 미국의 제한적 개입을 전망하는 의견도 존재. 돈로 주의는 패권의 영향력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사담 후세인 축출과 미국의 중동 정치 개입을 비판한 점 등. 더해 지난 6 월 이란 공습이 오히려 정부를 강화시키고 반정부 시위 운동의 호소력을 약화시킨다는 점도 미국의 직접적 개입 가능성을 일축하는 근거. 이란 현지 언론들은 혼란의 장기화와 정권교체 실패 가능성을 점치고 있음. 대체로 이란 국민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사례를 목격했기에 혼돈을 두려워할 것이라 예상

Global 주요 증시

주요국가	전일 종가 (pt)	장중 추이	수익률 (%)				
			1D	1W	MTD	1M	YTD
DOW	49,504.07		0.48	2.32	3.00	4.09	3.00
S&P500	6,966.28		0.65	1.57	1.76	1.84	1.76
NASDAQ	23,671.35		0.81	1.88	1.85	0.40	1.85
Russell 2000	2,624.22		0.78	4.62	5.73	3.88	5.73
Stoxx 600	609.67		0.97	2.27	2.95	5.52	2.95
영국(FTSE)	10,124.60		0.80	1.74	1.95	5.01	1.95
상해종합	4,120.43		0.92	3.82	3.82	5.39	3.82
홍콩H	26,231.79		0.32	-0.41	2.35	3.14	2.35
니케이225	51,939.89		1.61	3.18	3.18	2.54	3.18
KOSPI	4,586.32		0.75	6.42	8.83	10.69	8.83
KOSPI 200 선물	670.00		0.67	1D 수익률은 미국 증시 개폐장 시점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KOSDAQ	947.92		0.41	0.25	2.43	1.78	2.43
인도(NIFTY)	25683.30		-0.75	-2.45	-1.71	-0.61	-1.71

FICC

구분	전일 종가 (pt)	20D 추이 Daily	변동(bp, %)				
			1D	1W	MTD	1M	YTD
미국채 2년(%)	3.53		4.4bp	5.9bp	5.9bp	-8.3bp	5.9bp
미국채10년(%)	4.17		-0.2bp	-2.5bp	-0.2bp	-2.3bp	-0.2bp
국고채3년(%)	2.94		3.1bp	1.4bp	-1.1bp	-14.4bp	-1.1bp
일본10년(%)	2.09		1.7bp	3.0bp	3.0bp	13.1bp	3.0bp
달러인덱스(pt)	99.13		0.20	0.72	0.82	-0.09	0.82
NDF 환율(1M)	1458.29		0.48	1.21	1.31	-0.68	1.31
유로/달러	1.16		-0.20	-0.70	-0.93	0.09	-0.93
위안/달러	6.98		-0.09	-0.15	-0.15	-1.21	-0.15
엔/달러	157.89		0.65	0.67	0.75	0.64	0.75
WTI(NYMEX)	59.12		2.35	3.14	2.96	1.79	2.96
천연가스	3.17		-6.99	-12.41	-14.03	-24.80	-14.03
구리(LME)	13034.52		2.19	4.11	4.56	13.42	4.56
금(NYMEX)	4509.50		0.71	4.09	4.40	7.16	4.40

특징주: 트럼프-립부탄 회동, 반도체 섹터 훈풍

인텔: INTC — +10.8%, 트럼프와 립부탄의 회동

9일 반도체 섹터 중심 매수세 급증. **미국 실업률 개선에 따른 연착륙 기대감 확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인텔의 전략적 관계 확립 기대감** 보여지자 섹터 전반의 센티 개선 흐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립부탄 CEO와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포스팅. 불과 몇 달 전 그는 인텔과 중국 주요 기업들과의 밀접한 지분 관계로 CEO 사임을 압박한 바 있으나, 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인텔 주주로서 자랑스럽다(proud)고 강조하는 등 스탠스 변화 확인. 한편, 마이크론(+5.5%)은 섹터 훈풍과 함께 UBS TP 상향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 UBS는 투자의견 매수 유지와 함께 TP $300→$400로 상향 조정. **메모리 사이클이 단기가 아닌 구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AI가 메모리를 전략적 자산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강조. 특히 현재 마이크론이 고객 수요의 50~75%만 충족시키고 있다며, 심각한 공급부족이 구조적 메모리 사이클을 지지한다고 평가

오클로: OKLO — +7.9%, 에너지 확보 경쟁 가속화

메타가 오클로, 비스트라(+10.5%), 테라파워 등 원자력 기업 3곳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원전주 중심 매수세 확대. '35년까지 총 6.6GW 규모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확보한 전력은 오하이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투입할 예정. 구체적으로, 현재 시급한 전력 수요는 비스트라로부터 공급받으며, 오클로는 오하이주 지역에 원전 캠퍼스 조성하여 '30년부터 전력 공급 예정. 더해 테라파워로부터는 '32년부터 나트륨 원자로를 통해 전력 공급받기로 협정. **금번 계약은 AI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경쟁 하 에너지 확보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현재 미국 전력 사용은 '30년까지 최소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중 수요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예정

레나: LEN — +8.9%, 트럼프 대통령 모기지 채권 매입 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200B 규모 모기지 채권 매입을 명령했다는 소식 이후 건축자재 및 주택 제조 업체 주가 상승세. 빌더퍼스트소스(+12.0%), 펄티그룹(+7.3%), 닥터호튼(+7.8%) 등이 주가 상승 마감. 그는 트루스소셜 통해 모기지 금리 하락을 조성하고 있으며, 월간 비용 지불 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주택 보유 비용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 이날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5.59%, 30년은 6.05%로 각각 전일대비 15bp씩 하락** 마감. 한편 시장은 채권 매입 주체를 주택금융공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으로 추정

제너럴 모터스: GM — -2.7%, EV 사업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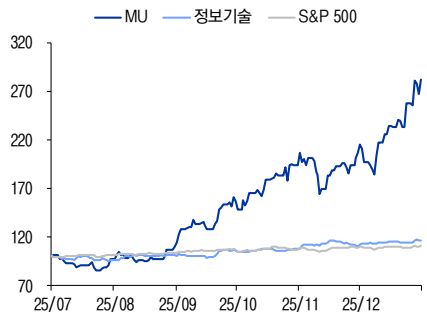
GM이 **전기차 사업 축소로 약 $6B 수준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비용 대부분은 공급업체에 지불해야할 위약금 및 대금. 일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철회 및 배기가스 규제 완화로 미국 내 EV 산업은 지속 악화**. 지난 달 포드도 EV 수요 감소로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GM은 작년부터 산업 전반 EV 수요 둔화 확인되며 선제적으로 케파를 감소했다며, 수익성 높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 발표

기타 코멘트 — AVGO(+3.8%), BBY(-1.7%)

브로드컴(+3.8%)는 캐시우드가 팔란티어를 매도하고 브로드컴 지분 매수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 **베스트바이(-1.7%)** 등 소매업체는 미 대법원 관세 판결 연기 소식에 하락세

오클로: OKLO

마이크론: MU



● S&P500 섹터 수익률

순위	섹터 Top 세부업종	수익률(%) 1D	Bottom 세부업종	수익률(%) 1D
1	소재	1.80		
	건축자재	4.88	화학	1.05
2	유틸리티	1.24		
	독립 전력 생산업체/	8.77	수도 유틸리티	-1.00
3	자유소비재	1.14		
	가정용 내구재	5.11	레저용 제품	-2.71
4	산업재	1.11		
	건설/엔지니어링	2.89	육상 운송	-1.13
5	필수소비재	1.09		
	담배	2.54	가정용품	0.26
6	정보기술	0.98		
	반도체/반도체 장비	1.67	통신 장비	-0.19
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0.75		
	무선통신서비스	1.34	미디어	-0.47
8	에너지	0.36		
	에너지 장비/서비스	0.92	석유/가스/소모연료	0.31
9	부동산	0.19		
	특수 리츠	1.43	주택용 리츠	-2.28
10	금융	-0.35		
	캐피탈 시장	0.11	소비자 금융	-2.10
11	건강관리	-0.58		
	생명과학 도구/서비스	1.52	생명공학	-1.04

● 종목 수익률 상하위 TOP 5 (%)

	UP	1D	DOWN	1D
1	샌디스크 /DE	12.8	라스베이거스 샌즈	-4.8
2	빌더스 퍼스트소스	12.0	코스타 그룹	-4.7
3	인텔	10.8	Datadog Inc	-4.0
4	비스트라	10.5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3.9
5	레나	8.9	에퀴티 레지덴셜	-3.9

● ETF 수익률 상하위 TOP 5 (%)

	UP	1D	DOWN	1D
1	ITB	6.3	UNG	-7.7
2	XHB	5.2	UNL	-4.9
3	SLV	3.8	ALTS	-4.2
4	SIVR	3.8	KCCA	-3.4
5	SILJ	3.6	BDRY	-3.2

● ETF 거래량 상위 유니버스: 수익률 TOP 10

	Top ETF	추이	1D
1	NAIL		18.5
2	KOLD		14.0
3	SMST		11.5
4	MSTZ		11.4
5	MULL		10.8
6	SOXL		8.7
7	AGQ		7.7
8	AVGX		7.3
9	ITB		6.3
10	KORU		6.0

● 테마 ETF 수익률 (%)

	테마	Ticker	1D	20D 추이
1	목재	WOOD	2.9	
2	우주	ARKX	1.8	
3	핵에너지	URA	1.6	
4	모빌리티	DRIV	1.4	
5	천연가스	NANR	1.2	
6	로봇&AI	AIQ	0.8	
7	인프라	GRID	0.8	
8	물	PHO	0.8	
9	디지털 경제	BITQ	0.6	
10	인터넷	SNSR	0.6	